

與 특검 특위 “특검법 개정 신속 추진… 내란특별재판부, 내주 초 지도부 논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1일 “특검 수사를 방해해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바꾸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특검법 개정에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현재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민생의 회복과 더불어 내란의 종식이다. 특검법 신속 개정으로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내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 구속기소로 특검 수사가 이제 2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한 내란총리 한덕수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법을 심판하라는 국민 명령에 대한 거역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내란 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미 민주당 의원 115인은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 분임토론)에서는 특별 영장 전담 법관 운영과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갈

“특검, 수사 인력 증원·기간 연장·대상 확대 등 전폭 지원”
“지도부·특위, 내란재판부 논의 안 했지만 유의 깊게 봐”
“특위 차원 광역지자체 내란 가담 요구 진상규명 추진”

이 했다”고 했다. 그는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와 3대 특검(특위)에서 본격 논의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한번의 심사와 재판이라도 더 공정하게, 더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고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로 내란, 국정농단 수사 외압세력을 둘러싼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사 이에 종교간 정경유착 규명은 특검수사 핵심성과”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수사 인력 증원, 수사기간 연장, 수사대상 확대 등 특검 수사가 한치의 부족함 없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언급한 뒤 “특검 수사 사각지대인 지자체의 내란 가담 행적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며 “특검은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할 것 촉구한다. 민주당은 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 내란 가담 여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취임 일선부터 국민주권 정부에 선전포고한 정동혁 대표와 국민의

힘에 경고한다”며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을 부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해산되는 것은 국민의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 세력 청산과 6·3 지방선거 승리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겠다”며 “지방선거는 내란 잔존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통합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할 피날레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다음달 4일 내란특별법 등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도부와 논의가 안된 상황”이라는 질문에 “내란 특검 3법의 경우 이미 지도부와 충분히 숙의해서 당론으로 추진된 법안이기에 때문에 4일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내란특별재판부 범의 경우 현재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지도부에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다음번 법사위 처리 전에 지도부에서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다음주 초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는 어떻게 복식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총괄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등을 예로 들면서 “특검의 열정적인 수사에 사실상 사법부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자정

과 내란 종식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자각하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광역지자체를 내란 동조 혐의로 특정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는 정황만 있을 뿐 증거는 없다”며 “계엄군의 요구에 응해서 청사를 폐쇄했던 사실이 있는 지자체를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추대한 것에 대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당사자가 법사위 간사 역할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뉴시스

오늘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접방문… 취약·위기가구 중점

행안부, 비대면 조사 이후 10월 23일까지 방문조사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이후 직접 거주지를 찾아 진행하는 방문 조사가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읍·

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취약 계층 등 중점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더라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6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

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조사 기간 중 이·통장이 자택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 정보를 확인하며, 이 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 및 제시해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10월 13일까지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0월 23일까지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자체가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뉴시스

한학자, ‘통일교의 국힘 불법 자금’ 의혹에 “허위 사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불법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인 정치적 정탁 및 금전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통일교 예배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년 대선을 전후해 한 총재를 만나 큰절을 하고 금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소포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 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3년 9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1월 전씨에게 ‘윤심(尹心)’은 정확히 무엇이나’ 문자 전씨가 ‘변함없이 권’이라고 답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이들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각종 현안을 청탁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워선의 허락을 받고 고가 물품 등을 전씨에게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에게 6000만원대 그라프사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에 달하는 사별백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 청탁용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전씨에게 ▲캠보디아 매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통일교 국제행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청 등을 요구했다고 본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과 특검,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며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는 글을 올렸다.

/뉴시스

푸틴, 中 텐진 도착… 3일 김정은과 나란히 열병식 참석

시진핑·푸틴·김정은, 열병식서 나란히 앓을 예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했다. 방중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열병식에 참석할 전망이다.

러시아 언론 리아노보스티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 땅을 밟았다. 중국 측은 레드카펫을 동원해 푸틴 대통령을 환영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내달 3일까지로, 먼저 31일~9월1일 텐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SCO) 참석을 비롯해 외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AFP는 푸틴 대통령이 20개 국가 정상

과 함께 시 주석 초청에 응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종종 SCO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 동맹의 대안으로 언급했다”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SCO 참석을 계기로 “현대의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더 공정한 다극적 세계 질서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베이징으로 이동해서는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다.

이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위해 방중을 발표한 만큼 북·중 외에 북·러 양자 회담, 북·중·러 삼자 회담이 이뤄질지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이와 관련, 전주 브리핑에서 “열병식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의 오른쪽, 김 위원장이 왼쪽에 앉게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열병식은 3일 오전 10시부터 약 70분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간 동안 공식 회담이 아니라도 북·중·러 삼국 지도자가 나란히 앉아 삼자 공조를 과시하는 모습이 세계에 공개되는 것이다.

리아노보스티는 푸틴 대통령이 몽골까지 포함해 중국과의 삼자 회담에 나설 예정이며, 기타 국가수반과의 회담도 별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상사와 랑머슴!
상사호 랑 직고!

제25회 영남문화감상
싱싱댄싱축제

2025. 9. 26. (수) ~ 10. 5. (일)
영광 불갑사 관광지 일원

주요 프로그램

- 상사와 in Love 콘서트 (신호범) 9. 26(금) 오후7시
- ‘그럴때 있으시죠?’ (김제동) 10. 4(토) 오후6시
- 상사와 대학가요제
- 상사와 꽃길걷기
- 상사와 달빛야(夜)행
- 브래드 이발소 9. 27(토) 오전11시, 오후3시
- 도래미 프렌즈 10. 4(토) 오전11시, 오후3시

주최/주관 : 영광불갑사상사회축제추진위원회 / 집행위원회 후원 : 영광군의회 영광군의회 한국수목원가꾸협회 산림청영양도 농업영광군지부 행복마을사업(주)키노코리아